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년 착공...정주여건 개선 기대

주민센터 옆 주차장 부지 2만㎡ 규모...주민 숙원 수영장 건립 626억원 투입...청년창업센터·문화센터 등 주민 편의 공간 역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수영장·문화센터를 갖춘 '복합혁신센터'가 내년 착공을 확정하면서 주민 3만8000명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은 나주시 빛가람동 199번지 부지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빛가람혁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에는 국비 19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2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연면적 2만㎡(부지 9085㎡),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혁신센터가 들어갈 부지는 빛가람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현재 무료 주차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빛가람행정복지센터는 민원 접수 기능은 남기고 새로 조성되는 복합혁신센터로 이전할 예정이다. 기존 복지센터는 혁신도시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곳에는 혁신도시에 없었던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문화센터, 세미나실 등이 갖춰진다. 공공기관 지역발전사업, 기업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향후 혁신도시 사업을 이끌어 갈 혁신도시 발전재단도 들어선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도울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조성될 방침이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함께 지역 어린이를 위한 생활SOC 복합센터도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생활SOC 복합센터는 빛가람동 383, 386번지에 연면적 7844㎡(부지 1만4426㎡), 지하1층·지상2~3층 2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국비 79억원·지방비 79억원 등 15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내년 6월까지 착공한 뒤 연말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이곳에는 어린이도서관과 돌봄서비스를 위한 공간, 주민참여형 상생 푸드마켓 등이 들어선다.

김용덕 혁신도시지원단장은 "복합혁신센터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혁신도시 입주민 뿐 아니라 원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참여정부부터 시작한 혁신도시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향후 성장 거점으로 완전히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 추진 사항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식 홈페이지(innocity.bitgar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 빛가람동에 조성될 복합혁신센터 조감도. <전남도 제공>

직거래 장터·친환경 운동...혁신도시 기관들 상생 팔 걷었다

인터넷진흥원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aT,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사학연금 등 11개 기관 예코백 기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기관들이 추석을 맞아 농·특산물 구매에 앞장서고 친환경 운동을 벌이며 지역사회 상생에 나서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3일 나주 본원에서 '추석맞이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인터넷진흥원은 나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행사를 진행했다.

참여 농가들은 직거래를 통해 기존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를 부담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주문 예약을 병행했다.

주요 판매 품목은 나주 대표 특산물인 배와 사인머스켓, 캠벨포도, 나주 배·한과세트 등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직원들이 지난해 추석의 2배 수준인

9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운영한 직거래 장터에서 1060만원 상당을 사들였고, 올해 구매액은 전년의 2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같은 날 나주 본사에서 국립나주병원과 ESG 실천문화 확산과 지역상생형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실천캠페인 공동 전개, 친환경 로컬푸드 병원급식 공급, 취약계층 공동지원 등을 펼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먼저 국산 농수산물 소비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함께 벌일 방침이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하는 운동을 말한다. 공사는 지난 7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로 지정해 나주 본사 구내식당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

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포함한 11개 지역기관은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 상무금융시장에서 '부메랑 예코백(천가방) 기증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주관하고 사학연금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 임직원들이 모은 천가방 1502개는 상무금융시장과 비아5일시장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부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4일 나주 목사고을시장에서 폐현수막 재활용한 천가방을 시장 고객들에게 나눠줬다.

또 천가방을 쓰면 물건 값 1000원을 깎을 수 있는 할인권을 배부하기도 했다. 마을 기업을 통해 제작된 이 천가방은 '약속가방'이라는 이름을 달아 지역 초등학교 환경 수업 재료로 쓰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바라카원전 사이버보안 지원

아랍에미리트 '나와에너지'와 협약

한전KDN이 바라카 원전의 시스템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장현 한전KDN 사장과 알리 알하마디 '나와에너지' 사장이 참석했다.

나와에너지는 에미리트 원자력 공사의 합작법인이다.

두 기관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디지털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전문가 교류와 기술정보 공유, 사이버 전략개발에 협력한다.

한전KDN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라카 원전 디

지탈 보안 등을 지원한다. 아부다비 토후국의 알다프라 지역에 위치한 바라카 원전은 세계에서 최대 규모 원전 중 하나이다.

한전KDN은 지속적인 현지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현지 지사를 개소했다.

한전KDN은 2010년부터 UAE 원전건설에 필수적인 원전 건설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 및 정보공유 시스템, UAE 원전 건설용 전자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

장보고 상인돕고 지역아동센터에 기부까지



한국전력 이현빈(오른쪽 세번째) 경영지원부사장이 14일 남광주시장에서 추석 장보기를 하고 있다. <한전 제공>

한전 4주간 사회공헌활동 집중

한국전력과 전국전력노조는 명절을 맞아 313개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전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역농산물과 생필품 4억4000만원 상당을 기부하고,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전은 전국 사업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러브펀드'를 활용해 봉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4주 동안을 '추석 명절 집중 봉사활동 기간'으로 정해 활동하고 있다.

이현빈 경영지원부사장 등 임직원, 정장식 전국전력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지역 전통시장과 아동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200만원 상당 지역 농산물과 생필품을 구매해 인근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같은 날 광주시 서구 광천지역아동센터 등 50곳에 1000만원 상당 은누리상품권과 방역 마스크 2500개를 전달했다.

나주 본사 인근 다문화가정, 치매노인 요양소, 미혼모 생활시설 등 6개소에는 1200만원 상당 물품을 비대면 지원했다.

이 부사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18억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21억

중개환영. 010-3605-5000

남구 덕남동 임야

- ▶ 661㎡(구. 200형), 지분 매매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개발 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매 - 6천만원, 중개환영 010-6837-4700